명화이야기(47)

프란시스코 데 고야

박 희 숙
- 서양화가
-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산업대학원 미술석사
- 주간 이코노믹 리뷰 『박희숙의 명화읽기』 연재
- 월간 조선 『인물연구』 연재
- 강릉대학교 산업공학과 출강

돈 버는 자랑하지 말고 쓰는 자랑하라는 속담도 있듯이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했던 화가가 고야다. 그가 18세기부터 19세기 스페인 격동의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경제관념이었다. 고야는 돈만이 화가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생각해 평상시에도 재정 관리에 힘을 쏟았다. 고야는 축적된 재산을 이용해 온갖 정치적 격변들 속에서도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고야가 평생 궁정화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정 수입 때문이었다. 궁정화가(당시 궁정화가는 월급이 있었다)가 되면 기본적인 생활비는 물론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초상화 주문을 쉽게 받을 수 있어 부를 축적하기에 아주 쉬웠다.

고야가 왕족을 그린 대표적인 초상화가 작품이 <카를 4세의 가족>이다. 이 초상화는 고야가 남긴 500여점의 초상화 가운데 가장 수작으로 꼽히고 있다.

화면 중앙 왼쪽은 왕비 마리아 루이스 중심으로, 오른쪽은 카를 4세를 중심을 배치해 전체적으로 균형을 주었으며 인물들을 양쪽 끝에 몰아 가운데를 중심을 돌아가는 느낌을 준다. 공식초상화에 맞게 등장인물들은 왕과 왕비에게 수여받은 훈장을 착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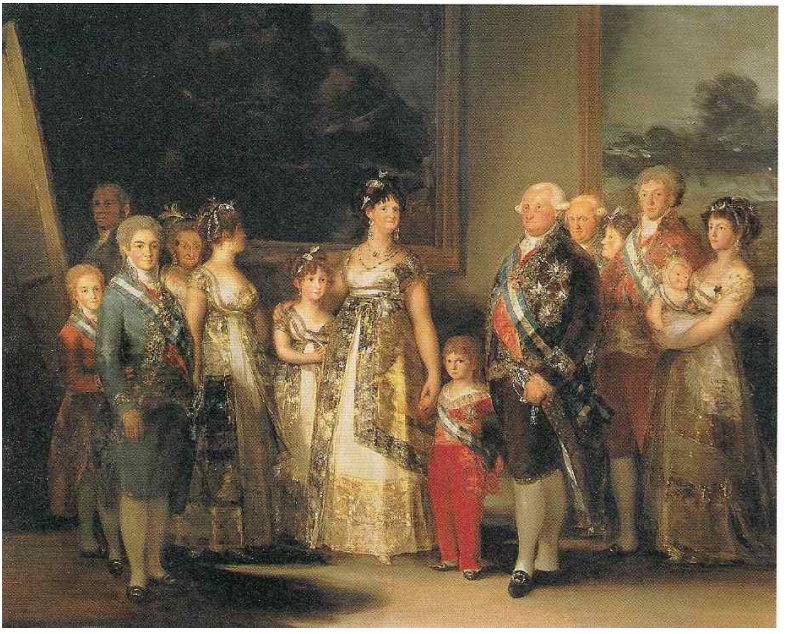
배경에 있는 큰 그림에는 고야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늘진 부분에 그려 넣음으로서 빛을 받고 서 있는 인물들과 구별되게 했다. 고

야가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의식해서다.

금실과 은실로 장식한 비단과 다양한 보석으로 장식한 옷을 여자들과 화려한 제복을 입고 있는 남자들이 늘어서 있는 것은 그들의 보이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물들이 만들어낸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 현실 정치적 불안을 상징한다.

고야가 화면 중앙에 왕비를 배치한 것은 왕비는 무능한 왕을 대신해 애인이었던 재상 고도이와 더불어 국정을 관여했기 때문이다. 또한 고도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왕비 사이에 자리를 비워 둔 것이다.

귀금속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는 왕비의 옷차림은 당시 왕비의 행실과 함께 웃음거리였다. 이 작품에서 왕비의 경박함을 보석으로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화려하지만 인물들은 생동감이 없이 표현된 인물들은 왕족의 우아함이나 귀족적인 분위보다는 거만함과 세련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카를 4세의 가족>-1880~1881년, 캔버스에 유채, 280*336,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소장

황실의 신망이 두터웠던 고야가 종교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은 그의 유일한 누드화 <벌거벗은 마하> 때문이었다. 외설 시비를 일어났던 이 작품은 <옷을 입은 마하>와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 두 작품의 모델은 동일한 인물이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벌거벗은 여인이 녹색조의 터어키 풍의 긴 소파에 대담한 포즈로 누워 있다. 마하의 등을 받치고 있는 레이스로 장식한 비단 쿠션과 그 당시 상류층에서 침대 대용으로 쓰고 있는 소파는 이 작품의 모델이 상류층임을 암시한다. 두 팔을 머리 뒤로 받치고 시선을 관람객에게 두고 있는 마하는 벌거벗은 수치심보다는 당당하다. 고야는 모델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배경 설명을 배제시켰다. 이 작품이 알려지게 된 것은 고도이 재상의 소장품 목록에서부터였다. 고도이는 이 작품을 자신의 비밀 전시실에서만 전시를 했지만 너무나 도발적이라고 느낀 사람들이 소문을 퍼트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또 세력가의 부인과 미천한 신분의 화가와의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당기기 충분했다.

결국 이 작품 때문에 고야는 1815년 외설죄로 종교재판까지 받는다. 고야는 모델에 대해 함구했지만 스페인 정부의 제지를 받아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못했다.

프란시스코 데 고야<1746~1828>는 초창기에 스페인의 희망을 담기 위해 밝고 경쾌한 그림을 그렸다면 후기에는 온갖 사회에 대한 격렬한 비판을 다룬 어두운 그림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야는 말년에 심하게 앓아 청각을 상실하지만 나폴레옹 군대가 스페인을 침략하자 그는 10여 년 간 나폴레옹 침략에 대항하는 스페인 투쟁을 그림으로 남겼다. 고야는 억압받는 인간성의 저항의 외침을 붓을 매개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벌거벗은 마하>-1796~1798년, 캔버스에 유채, 97*190,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소장